

News Release



New Jersey Courts

Independence • Integrity • Fairness • Quality Service

GLENN A. GRANT, J.A.D.

Acting Administrative Director of the Courts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PETER McALEER

MARYANN SPOTO

Office of Communications and Community Relations

609-815-2910

www.njcourts.gov

RICHARD J. HUGHES JUSTICE COMPLEX · P.O. BOX 037 · TRENTON, NJ 08625-0984

즉시 배포 보도 자료: 2020년 4월 14일

‘획기적 과업’ 전세계적 유행병 확산 중 공공의 안전과 지속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뉴저지주 법원이 취한 조치

‘A Monumental Task’ How New Jersey Courts Balanced Public Safety and Access to Justice During a Worldwide Pandemic
(Korean)

3월 초 코로나바이러스가 주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할 때, 뉴저지주 사법부는 법원공무원들과 대중을 보호하면서도 법원의 업무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임무를 즉시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 임무는 정부의 한 기관 전체를 원격 운영 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법원의 행정부장 대리인 글렌 에이 그랜트 판사(Judge Glenn A. Grant)는 “전례 없는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우리는 판사 및 법원공무원들의 안전 뿐만 아니라 법원 이용자들의 안전도 보호하는 동시에 대중에게 중요한 법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법부는 중요한 과제 두 개를 해결해야만 했다. 즉, 600개 시설에서 근무하는 거의 10,000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모든 법원 기능을 원격 운영하고, 가능한 한 많은 법원 사건들과 절차들이 차질없이 계속 진행되도록 원격 영상 법정의 수를 확대하는 과제였다.

전염병 확산 이전에는 약 3,200명의 사법부 공무원들이 원격 작업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불과 2주 만에, ITO 공무원들은 사법부의 인프라 성능을 크게 개선해서 그 숫자를 7,700명으로 증가해야만 했다.

사법부는 형사 사법 개혁에 따라 주말 최초 출두 심리를 지원했던 21개의 코비드 발생 전의 원격 영상 법정의 수를 1주 만에 230개로 늘렸는데, 여기서는 일상적인 법원 사건들을 대중에게 실시간 스트리밍할 수 있다. 이 숫자는 300개까지 증가할 수 있다.

대법원 판사, 판사 및 공무원들은 이제 전화 및 Zoom, Scopia, Teams 등과 같은 원격영상 플랫폼을 이용하여 모든 유형의 신청, 회의 및 심리를 다루고 있다.

사법부의 정보통신 기술 사무소(Information Technology Office: ITO)의 최고 정보 책임자인 잭 매카시 3세(Jack McCarthy III)는 “단기간 내에 성취한 획기적인 과업이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원격 근무 공무원수를 3배로 늘리고, 기존의 원격 영상 법정 수 보다 거의

10 배가 되도록 우리의 기술적 인프라를 급작스럽게 ‘구축’해야만 했다. 이 모든 작업이 불과 2 주 내에 완료되었다.”

IT 공무원들은 또한 주내 수 백명의 판사들에게 새로운 원격 영상 법정 운영 방법에 대한 훈련을 제공했다.

원격 영상 심리를 시작한 3 월 16 일부터 4 월 12 일까지 뉴저지 주 법원은 38,000 명 이상이 참여한 약 7,300 건의 절차를 원격 영상으로 진행했다.

입양, 결혼, 마약 법정 심리 및 그 외 많은 절차들이 코비드-19 보건 위기 동안 집의 안전한 공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의 대법관 7 명은 변호사들이 담당 사건들을 원격 변론하는 동안 그들의 개별 판사실에서 ‘회의를 연다.’ 코비드-19 가 확산되기 이전과 똑같이, 법원 사건들은 법원의 웹사이트 njcourts.gov 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된다.

변호사들은 상소 사건들을, 판사석의 판사 앞이 아닌 역시 원격 근무를 하는 판사를 대상으로 전화로 변론한다.

배심원 재판들은 일시 정지된 상태이지만, 형사 및 법률 부의 상급 판사들은 여전히 모든 사건들을 일정대로 처리한다.

허드슨 강 부근의 형평법 상급법원의 수석판사 제프리 자브론스키(Judge Jeffrey Jablonski)는 다른 많은 사건들 외에도 3 건의 재판을 이미 주재했다.

법정절차들이 법정을 벗어나 진행될 때 다른 느낌을 주지만, 법원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소송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건이 신속하게 법원에 회부되는 것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와 자격을 보호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자브론스키 판사는 말했다.

자브론스키 판사는 “법정에 출두한 사건 당사자들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원격 영상 심리를 사법부가 주도하고 서서히 발전해 나가는 ‘혁신적인 기술의 새로운 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의구심은 이것은 우려 대상이 아니고, 실제 희소식이며, 사법부의 업무를 중단없이 진행하도록 돕는 틀이라는 확신으로 변했다”라고 말했다.

###



2020년 3월 30일 구두 변론을 시청하고 있는 뉴저지주 대법원. (뉴저지주 사법부)



2020년 4월 13일 상급법원 판사 스티븐 테일러(Judge Stephen Taylor)가 모리스 카운티에서 구금 재개 신청 심리를 주재하고 있다.